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음 1월 26일) 제17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역통합방위회의 개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에 송하진 도지사와 황현 도의회 의장, 김경수 35사단장, 조희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하여 14개 시장 부군수 및 통합방위 위원들이 올해 전북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안전 및 테러대비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 혁신도시,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로

서울·부산에 이어... 도, 농진청 등 이전기관 연계 '전북 금융타운' 조성키로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연계해 금융회사들이 집적되는 금융타운 조성 등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구상은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 투자 지원을 위한 특화금융서비스 기능 지원,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업체들과 연계된 '농생명 금융투자허브'로서 기능을 위한 '전북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중에 있어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농생명 특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 반영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해 전북을 미래 금융산업 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마련코자 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 기금적립금이 2043년에 2,561조원 규모에 운용인력은 2,0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해 전북지역 금융서비스 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전북 지역 GRDP는 시나리오별로 약 317억~4,522억원, 부가가치는 최대 4,530억, 소비는 약 242~2,590억, 투자는 약 1,846억~5,53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위해 국내외의 340여개의 거래 기업,기관의 회의 행사 및 방문객 증가로 전북의 관광, MICE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된 취업유발 940명, 생산유발 효과는 1,0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의 특성을 살린 '전북형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전략적 대응 계획' 마련을 위해 3월 중으로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

계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과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인력양성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가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집적된 전북혁신도시에 '미래식량 연구소' 설립을 제안해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저성장, 저고용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북은 사회적경제 분야 핵심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인적 인프라가 충분히 사회적 경제 질적 전환을 위한 하나의 집적된 혁신공간 마련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혁신도시를 사회적 경제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통한 지원하고 토달 체험이 가능한 HUB도시 조성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 거점을 활용 직업훈련연구기관, 창업지원

기관, 미래유망 직종 취창업연계센터, 전문기술직종 체험기관 등 대규모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미래산업인력 양상으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8월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완료된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기관 특성을 활용 혁신도시를 농생명, 제3금융, 지식·공간·문화서비스 세 분야의 성장 거점이 되는 '트라이앵글 허브 구축'을 통해 전북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새로운 성장 모델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이번 대상에 공약으로 반영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전북의 미래 성장방안 논의
4면	전북경찰, 폭력조직 소탕 만전
16면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논란

## 전주시,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 수상

전주시가 전통관광지 부문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룸에서 해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한 2017년 제1회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전통관광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선정한 2017 제1회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조업, 금융, 관광, 교육 등

총 5개 분야로, 전주시는 관광분야 초청도시로 선정됐다.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로 확대 재인증되고 한국관광 100선 3회 연속 수상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글로벌 전통문화체험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1000만 관광객 유치와 함께 관광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대 등 도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10명을 선발,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취업연수를 진행했다.

## 도내 대학 유학생들 해외 취업연수 '호응'

전북대, 베트남 유학생들 대상 하노이 현지 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이 도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연수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 학생들을 해외 취업연수를 보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연수를 지원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전북대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대 등 도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10명을 선발,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취업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출한 한국기업인 K&K Global, 신한은행, 태평양물산, 발리비나, 진원전자, 메인 Elecrom 등 기업들과 KOICA, KOTRA,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베트남 진출 국가기관 등을 방문해 집중 교육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원들을 직접 만나 베트남 내 취업 인재상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가상 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법 등 취업 전략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KOTRA 등 기관관방을 통해 베트남 지역별 기업정보, 진출 기업 형태 등에 대한 정보 습득과 한국기업 내 취업 및 베트남 협력 사업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국제교류 인재양성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혜은 기자

3th 기념 행사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개점 3주년 행사를 진행 합니다.  
추첨일시 : 2017/3/24(금), 오후 2시, 하나로마트 주차장  
응모기간 : 2017/3/1(수) ~ 3/23(목), 23일간  
당첨 3만원 이상 구매시 응모권(최대 10장)을 드립니다!  
이제 편리하게 쇼핑하세요! 무료배달 서비스 안내!  
전주하나로마트

경품+사은大 축제  
행사기간 : 2017/3/1(수) ~ 3/14(화), 14일간  
2017년 신형 기아자동차 모닝 (오토)  
삼성냉동고  
300부까 혜택을 드립니다!  
전북은행/롯데/씨티카드 결제 고객께 증정!